

9 | 정죄보다는 생명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 8 : 11).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새 436장, 통 493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 : 1~11(참고, 시 35 : 13)

성경말씀 경청하기 말씀 해석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중요한 두 가지는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전 뜰로 들어 오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 고약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을지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1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3-5절).

2 생명을 공홀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7-11절).



성찰하기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남편이 죽자 아내는 일곱 명의 자녀들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동생이 누나를 도와 일곱 명의 조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되니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조카들을 먹이려고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조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네 차례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옥 후 전과자가 되어 숙식도 해결할 수 없었던 차에 한 주교의 집에 들어가 저녁을 대접받았습니다. 마련해 준 잠자리에서 은춧대를 발견한 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은춧대를 훔쳐 밤거리로 도망을 칩니다. 이윽고 그는 순찰 중이던 순경에게 붙잡혔습니다. 순경에게 다시 끌려온 이 남자를 보고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은춧대는 내가 준 것이지 저 사람이 훔쳐 간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순경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교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악에 속하지 말고 선을 행하세요. 이 시간 당신을 용서함으로 당신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단하기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돌을 들어 치려고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는 저를 정죄하고, 다른 이를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서는 저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처럼 용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봉헌찬송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새 597장, 통 378장)

오늘의 기도와 주기도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주기도로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처럼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